

지역 소식통

정읍시-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정읍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 훈련부가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학수 시장과 전정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비대면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계절성 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입국 시기와 인원, 나이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캄보디아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권익 보장을 위해 협조하고, 거주 문제와 인건비 지급 등의 근무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평가 우수 선정

정읍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 장관 상패와 7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으로 정읍시 하수도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우수성 등을 높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시상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38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정책 추진 '온 힘'

정읍시, 청년 정책위원회 열고 추진실적·시행계획 등 심의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읍시 청년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2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년 정책위원회는 지역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청년정책 제안과 심의, 자문 등을 담당한다.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소통 기반 강화를 목표로 청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다각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2020년 청년정책·임금·법률·일자리·문화 등 분야에서 화석과 경합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 출범했으나, 지난 10월 지역 청년과 여성 위원 의 비중을 높여 재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정읍시가 추진한 주요 청년정책의 실효를 진단·평가하고, 내년도 시행계획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재용 부시장과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을 비롯해 정책위원회 위원들과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앞으로 청년정책의 추진 방

향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용 부시장은 "청년들과의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으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4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청년지원 조건에 대한 토대를 다졌다.

지난해 5월에는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만들어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청년발전기금 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내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유료화 전환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 종료

부안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부안제 3농공단지 인근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로부터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유료 운영에 따른 정기간 이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용 요금은 △2.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일 3,000원, 월 3만원, 연 32만 4,000원,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일 1,500원, 월 2만원, 연 21만6,000원으로,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이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정기간 이용을 희망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접수기간 내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3-580-4539)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동

진면 한가매길 84일원에 21,715㎡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면수는 165면(대형 106면, 소형 59면)이며 관리동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밤생주차 등 불법 주차차를 줄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 여수, 교류전 '동진강을 따라' 전시회 25일까지 열려

정읍과 여수 작가들의 미술 교류전 '동진강을 따라' 전시회가 25일까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읍과 여수 간 지역작가와 지역민들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5명의 정읍 작가(송정숙, 백소연, 장순, 김기수, 노예진)와 6명의 여수 작가(정원주, 서봉희, 윤석현, 이은이, 배혜미, 김선수) 총 11명의 작가가 참여한 회화작품 24점을 선보인다.

정읍·여수 작가들은 1박 2일간 동진강 유역을 탐방하며 정읍을 스케치 답사한 후, 호남평야의 짙은 동진강 물줄기를 따라 직접 체험한 정읍의 아름다운 경관과 비경을 작품화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매시간 입장이 가능하며, 정읍시



정읍과 여수 작가들의 미술 교류전 '동진강을 따라' 전시회가 25일까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063-571-5170) 또는

정읍시청 문화예술과(063-539-5175)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여러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기쁘다"며 "그간 지쳤던 우리의 삶에 잠시나마 휴식과 위안이 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지발장학회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정읍시 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17년 개관한 이래 지역민을 위한 생활문화의 공간과 전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함께하는 나눔 · 지속가능한 고창

희망2023 나눔캠페인 1일부터 시작

희망2023 나눔캠페인이 고창군에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31일까지 82일간 진행되고 경기참여를 고려해 목표액을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으로 설정했다.

고창군 희망2023나눔캠페인 제1회 기부자로 더불어민주당 고창국정당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창국정당은 지역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더불어 행복나눔 일일호프'를 열어 얻은 수익금 600만원을 고창군에 전달했다.

또 삼원면 농업회사법인 가미에서 점입배추 1000포기(420만원 상당)를 고창군에 전달했으며, 송림건설 고복

환 대표가 300만원, 고창군가우회(회장 김종효)가 200만원을 기탁했다.

희망나눔캠페인 참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용계좌, 각 언론사의 사랑의 계좌와 고창군청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금 및 현물기부를 할 수 있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추위지는 날씨가 만만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선운산도립공원, 세계유산 고창방문의해 홍보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를 앞두고 주차장 매표소 앞 대형간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가을 단풍철, 거리두기 완화와 야외마스크 전면 해제로 수많은 관광객이 선운산을 찾았다. 이에 선운산은 지역 관광의 핵심지구로 키우면서 고창방문의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제 선운산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국민여가캠핑장, 유스호스텔, 경관폭포 등이 자리잡고 있어 세계질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고창군 관계자는 "선운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게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운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며 다시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선운산 도립공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 본격 가동

정읍시가 2023년에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의 집행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 운영에 들어간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 조기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합동 설계단은 임용덕 건설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시설(토목)직 공무원 4개 반 20명으로 편성됐다.

설계단은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인 소화천 용배수로, 마을인길 정비 등 총 20여 건 약 31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실시설계를 맡게 된다. 12월 말까지 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해 2023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약 3억원의 용역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전현장 조사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시설 직 공무원 선배 간의 설계기술 전수 및 업무연찬을 통해 신규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